

화합된 힘으로 양록난(難) 타개하자

요즘 양록업계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국가에는 국가 위기 상태의 국난이 있듯 우리 양록업계도 녹용비상사태가 일어나려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절편녹용 수입 요구가 바로 그것.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우리 정부에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 지난 5월에 한국과 뉴질랜드 경제위원회에서 절편녹용 수입 문제가 주요 논제로 다뤄졌으며 오는 9월에 다시 한·뉴 경제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만약 한·뉴 경제위원회에서 절편녹용 수입이 결정된다면 우리 양록업계는 어떻게 될까? 국내 양록업계의 붕괴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일 것이다.

현재 국내 사슴사육두수는 약 25만~30만두에 이르고 양록농가는 2만여 농가로 그 가족과 양록업에 종사하는 기타 가족을 합하면 10만여명의 생존권이 뉴질랜드 절편녹



송 정 호
〈한국사슴목장 대표〉

용 수입여부에 달려있다. 또한 그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한 30만 여두의 사슴도 갈 곳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 문제가 쉽게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가뜩이나 수입녹용의 불법유통으로 국내 양록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생산지만 간단히 바꾸면 국산으로 둔갑될 수 있는 절편녹용은 국내 녹용시장의 파탄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절편녹용의 수입이 허락된다면 뉴질랜드 분명 녹용을 의약품에서 축산물로서 변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국내 양록업자들의 천신만고 끝에 개척해 놓은 소비자와의 직거래 시장을 뉴질랜드는 값싼 저질 녹용으로 손쉽게 앗아갈 것이다. 각 대형 유통업체는 물론 소규모 점포까지도 그들의 녹용으로 도배, 예쁜 포장 과정을 걸쳐 소비자를 유혹하게 될 것이다.

견물생심. 가까운 상점에서 보기 좋게 썰

어놓은 녹용을 힘들이지 않고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구태여 농장까지 발길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욱이 시간절약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우리 양육인들은 이러한 현실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앉아 불구경만 할 수는 없다. 다행히도 양육협회를 비롯한 몇몇 단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체회원과 각 농가를 대상으로 범 양육인 꺾기대회를 열기로 하였다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모든 양육인들은 국내 양육산업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뉴질랜드에 대항하기 위해 꺾기대회에 참여,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나하나 쯤 참여안한다고 해서...'라는 안이한 생각은 당연히 버려야 한다. 커다란 힘은 결국 각 개인의 조그만 힘이 집결될 때 일궈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현재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물론 모든 양육업자가 양육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케 될 것이다. 모든 단체의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도 금번 실시되는 범 양육인 꺾기대회에는 예외 없이 참여, 양육인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작금은 양육관련 비상시기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참여 여부를 놓고 나름대로의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서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차후에 다른 것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누가 싫어



서, 어느 단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란 마음은 버려야 한다. 이번 계기에 흑시라도 그 동안 개인간 혹은 단체간 쌓인 응어리가 있다면 모두 풀어버리고 진정한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모두가 모여 한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을 때 분명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사려된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행사 주최측에서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한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인원이 참여, 뜨거운 합성으로 양육인의 현실을 어필할 때 우리 정부도 귀를 기울이고 뉴질랜드 또한 국내 양육인을 두 번다시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다.

9월11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범 양육인 꺾기대회, 뜨거운 마음으로 모두가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한국양육**